

IBK MAGAZINE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 ELECTRIC CAR



2022  
SPRING

—  
vol. 25



Battery



Metaverse Property



Oil Money

## CONTENTS

### 004 Hot Issue 1

국내 배터리 3사가  
준비해야 하는 미래

### 010 Hot Issue 2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열풍 진단

### 016 Global Economy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마러 갈등으로  
인한 경제 역풍

### 022 Inside Golf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달러가  
일으킨 골프 플랫폼 전쟁

### 026 Tax Guide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방법

### 030 Investment

2022년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036 WM Special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다  
판교WM센터

### 042 Trip To

해사하게 피어난 봄꽃  
봄빛을 가득 품다

### 048 Tea Time

차의 온기로 비염을 무찌르다

### 050 Culture Curation

봄빛 싱그러움이 가득한 문화 산책

### 052 Materpiece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파라솔을 든 여인-카미유와 장



IBK MAGAZINE  
**WIN CLASS**  
WORLDWIDE CLASS

발행일 2022년 3월 2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배터리 3사가 준비해야 하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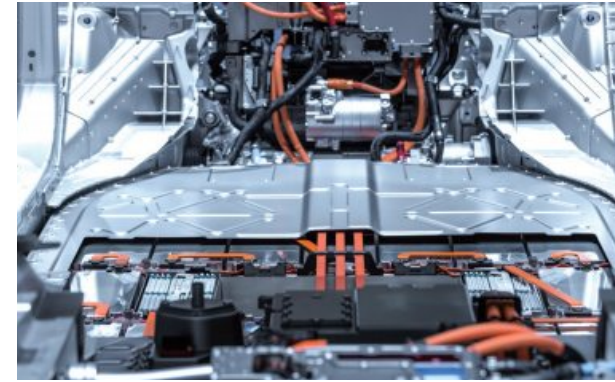
전기차의 위세가 커지면서 배터리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사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배터리 3사도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합작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급변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writing.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전기차

전기차의 특세가 심상치 않다.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이 빨라지는 동시에 전기차의 완성도는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단점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있고 충전 인프라 등 문제점도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위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탄소제로 정책이 글로벌 화두가 되면서 국제 환경기준이 까다롭게 변하는 것도 무공해차 보급이 촉진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제작사 중 전기차를 제작하지 않는 기업이 없고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에 전력을 기울였던 일본 도요타 등도 전기차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작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된 전기차는 약 670만 대 정도로 500만 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는 약 950만 대를 예상하며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를 넘는 실적이 확실할 것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약 9,000만 대 중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수년 이어지면 2025년에는 연간 전기차 판매 2,000만 대 시장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 전기차 완성도를 높이는 배터리 기술 개발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기차용 변속기 개발이나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의 배터리 기능 유지 기술과 히팅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도 꼭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과제는 배터리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 배터리에 따라 전기차 성능과 가격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기차가 현실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의 배터리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가장 앞서 있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가격도 높지만 열에 취약하여 전기차 화재 등 위험성이 크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는 배터리 성능이 약 20% 떨어지면서 주행거리가 축소되기 때문에, 미래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과 화재 등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확보와 더불어 낮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각종 신기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동시에 내구성을 개선시켜 약 10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전 횟수도 획기



적으로 올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가 더욱 득세하면서 배터리의 공급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배터리 공급량은 향후 5~10년 사이에 더욱 크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된 배터리 공급이 전기차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작사와 배터리사의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0여 년의 자동차 제작사의 수직·하청 구조 위치도 배터리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제는 동등관계, 수평관계로 바뀌고 있다.

### 배터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중·일

현재 배터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곳은 한·중·일이다. 중국은 CATL(닝더스다이)와 BYD(비야디)가 주도하고 있고 일본은 미쓰비시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SDI가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차례대로 글로벌 순위 2, 5, 6위권 정도다. 물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CATL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주로 자사 배터리에만 인센티브를 노골적으로 주고 있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글로벌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전기차가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를 넘는 실적이 확실할 것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약 9,000만 대 중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수년 이어지면 2025년에는 연간 전기차 판매 2,000만 대 시장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시장 중 35~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중요성을 판단하면 중국 공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국의 노골적인 자국산 배터리 인센티브 제도부터 시작하여 자유경쟁체계가 아닌 사회주의 중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장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출은 하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이다.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열에 강하여 화재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떨어져 매우 무겁고 부피가 크며 재활용 과정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리튬인산철과 리튬이온 배터리 두 배터리의 위상을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일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스탠다드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보급이 커지고 있으나 아무리 성장하여도 점유율이 약 20~30% 선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



션과 SK온은 그동안 없었던 리튬인산철배터리를 동시에 개발하여 어느 정도 구색 갖추기를 준비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영역에는 때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 배터리의 기술적 진보를 위한 노력

국내 배터리 3사의 숙제는 점차 많아질 것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미래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한계성을 높일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는 물론 향후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적 기술 확보와 경제적 생산이 가능한 능력 보유도 핵심일 것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이 전고체 배터리 특허에 이어 시범적 모델을 출시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전고체 배터리는 미완의 대기 중이다. 누가 언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으로 제조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조건 완성은 오는 20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진보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중심으로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에 알루미늄을 가미한 NCMA와 NCA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터리 안정화와 더불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음극제를 보완한 제품과 충전 횟수가 늘어도 안정적으로 배터리 밀도를 유지하는 기술 등 다양한 배터리 관련 기술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 합작 공장 설립 중인 국내 배터리 3사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도 가일층 부가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각각 GM, 포드와 합작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도 스텔란티스와 조만간 미국 공장을 기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제작사와 배터리사의 합작 공장은 미래 급증할 전기차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더욱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3사의 고민도 늘고 있다. 기술적 우위는 당연하지만 이를 위한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은 물론이고 리튬 등도 해외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원자재는 2~3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안정된 수입 다변화와 확실한 계약이 중요하다. 재고물량의 장기간 확보와 가능할 경우 대체 원자재를 활용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숙제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쏟아지는 폐배터리가 많아지고 있고 향후 고가의 폐배터리를 이용한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하여 고가의 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배터리사는 이러한 리사이클링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도 중요한 대목일 것이다. 이미 테슬라와 GM, 포드는 물론이고 폭스바겐 등 상당한 제작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였다. 자체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안정된 공급체인을 구성하겠다는 논리다. 물론 이렇게 선언한 국가와 지역의 경우 배터리사가 없어서 느끼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내재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도 배터리사가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여서 더욱 이 지역에 포진한 제작사의 불안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배터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장이 없던 시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지난 20년간 진행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시점에는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내재화 성공이 줄을 이으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애플카와 소니카 등이 범용화된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파운드리가 등장하면서 찍어내는 전기차 나타날 것이라는 뜻이다. 이후에는 아마존카, 구글카는 물론이고 LG카와 삼성카도 등장 가능성이 있다. 즉 주문형 자율주행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배터리사들도 전기차에 직접 개입하는 시장이 구성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래가 아직까지는 매우 밝으나, 앞으로 전기차 등의 급변과 주도권 싸움 등이 안개 속인 만큼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한다.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으로 미래 배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되길 바란다.

## SUMMARY

Hot Issue  
1

### 전기차의 위세 속 국내 배터리 3사의 노력

전기차의 단점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충전 인프라 등의 문제점도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위세는 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탄소제로 정책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제 환경기준이 까다롭게 변하면서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전기차 실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올해는 약 950만 대, 내년에는 1,000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어깨가 무겁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완성도를 높이는 배터리 기술 개발이 주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리튬메탈 배터리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적 기술 확보와 경제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배터리 3사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합작 공장 설립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제작사와 배터리사의 합작 공장은 미래에 급성장할 전기차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글로벌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와 더불어 배터리사들도 전기차에 직접 개입하는 치열한 시장이 구성될 수 있기에 국내 3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열풍 진단

메타버스 분석사인 미국 메타메트릭솔루션즈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상부동산 거래 규모는 5억 1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2배 가까운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국내 역시 메타버스2(Metaverse2), 세컨서울(2ndseoul) 등의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가 시작된 상태다. 도대체 가상 부동산이 뭘기에 열풍이 불고 있는 걸까. 붕이 김선달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동강 물을 팔았는데 가상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물거품처럼 꺼지게 될 것이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걸까.

writing. 이임복(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NFT, 디지털 자산의 미래> 저자)



## 가상 부동산에 앞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가상 부동산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바로 메타버스와 NFT다.

메타버스는 Meta(초월)와 Universe(세상)의 합성어로 현실세계를 '디지털'을 통해 초월한 세상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게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세상에서는 아바타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가상 부동산은 이 '공간'에 대한 사업이다. 공간은 현실세계처럼 땅이 될 수도 있고,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로 '대체불가 토큰'이란 뜻이다. 음악, 사진, 그림 등 디지털로 된 어떤 파일이든 블록체인으로 감싸 누구도 위조, 복사, 변조할 수 없는 토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파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원본 증명서'인 셈이다. 가상 부동산에서 NFT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가 이런 거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메타버스 부동산 사이트에서 땅을 샀는데, 다음날 그 땅을 다른 사람도 소유했다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자료 해킹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블록체인 방식의 NFT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 당사자를 포함해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 Metaverse

메타버스는 Meta(초월)와 Universe(세상)의 합성어로 현실세계를 '디지털'을 통해 초월한 세상을 의미한다.





거래 장부를 가지는 분산 장부에 있다. 누구나 원한다면 NFT를 조회해서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방식의 NFT가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게 한다.

### 거래되고 있는 가상 부동산 종류

그렇다면 현재 유명한 가상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했느냐와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서비스들은 Earth2(어스2), 메타버스2(Metaverse2), 세컨서울(2ndseoul) 등이 있고,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은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가 있다. Earth2는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바탕으로 했다. 이 지도 위에 가로세로로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타일을 사고파는 게임이다.

메타버스2는 국내 기업이 만든 서비스로 Earth2처럼 위성지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다. 아무래도 한글 서비스가 되어 있기에 Earth2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더 샌드박스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더 샌드박스 게임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다. 더 샌드박스 부동산은 총 16만 6,464개로 되어 있으며, 작년 말 기준 각 타일은 1만 2,700달러(약 1,500만 원-암호화폐 기준이라 시세는 변동될 수 있음)가량에 거래됐다. 디센트럴랜드 역시 가상의 부동산을 판매하며 9만 6천 개의 땅이 1만 4,440달러(약 1,700만 원)에 거래됐다. 평당 1,500만 원에서 가상 부동산이 거래된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 투자의 기준점이 다른 가상 부동산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 가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강남 땅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건 희소성 때문이다. 그런데 희소성만 가지고 있다 해서 가격이 오르는 않는다. 강남 땅의 가치는 접근성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교통 시설과 이용하기 편리한 상업 시설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땅만 희소성이 있다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이를 메타버스 부동산에 대입해 보자. 희소성 면에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와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모두 한정적인 부동산 자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희소성을 충족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게임이 또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인공위성 지도를 바탕으로 한 게임은 수없이 나타날 수 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부르마블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모두의 마블이 나왔으며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왔다. 더 재미있는 게임이 나타날 경우 기존 게임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디센트럴랜드와 더샌드박스의 경우 다른 서비스들은 따라할 수 없는 자체적인 세계관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을 판매하기에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더 매력적인 다른 게임들이 나타난다면 외면받을 위험이 있다.

상업시설 측면에서는 어떨까? 메타버스 세상에서 '길목이 좋은 곳'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할 필요 없이 순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서울



이라 하더라도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강남역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가 더 매력적인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투자의 기준점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 투자 위험성에 주의해야 하는 가상 부동산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이슈는 투자의 위험성이다. 메타버스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두가 거래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 이는 거래에 대한 증명만을 공유하는 개념이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까지 서로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가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운영 재개를 요구할 수도, 투자금을 돌려 달라 이야기할 수도 없다.

서울의 지도를 694만 개의 타일로 쪼개어 판매했던 세컨서울은

## SUMMARY

Hot Issue  
2

### 메타버스에 등장한 새로운 투자, 가상 부동산

디지털을 통한 초월한 세상, 메타버스. 누구나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바타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이 가상 부동산이다. 메타버스에서는 블록체인 방식의 NFT(대체불가 토큰)가 가상 부동산의 증명서가 된다.

현재 가상 부동산에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Earth2(어스2), 메타버스2(Metaverse2), 세컨서울(2ndseoul) 등이 있고, 가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은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가 있다. 그런데 가상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에는 현실 부동산과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현실 세계의 부동산 가치는 희소성과 접근성 등이 있으나, 가상 세계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것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떤 장소로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하지 않기에 접근성도 의미가 없다. 이처럼 현실과는 투자의 기준점이 다르다.

게다가 명심해야 할 것은 투자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 장부를 통한 증명은 가능하지만 투자 리스크까지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가상 부동산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기억하고, 투자의 한 영역으로서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2월 29일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나 이틀 만에 서비스 중단에 들어갔다. 정식 서비스 출시 후 운영사인 엔비티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폭등했다. 중단 이유는 개발 안정성, 서비스 정책, 법무/사업적 이슈 때문이라 밝혔으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에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긴 어렵다. 또한 가상 부동산이 아직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상 부동산을 서비스 하는 모든 곳이 위험하거나 사기성은 아니다. 다만 이 역시도 투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일확천금의 투기를 노려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희소성이 보장되는지, 지속적인 흥행성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갈등으로 인한 경제 역풍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공략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한 경제 역풍이 예상되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writing.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원장)

## 미·러, 우크라이나를 놓고 왜 싸우나

2021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갈등이 대립을 넘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형성된 군사안보적 불연속선은 냉전 종식 이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동쪽을 향해 힘의 진공벨트를 흡수하려는 미국과 자국의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고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사이 격렬한 투쟁의 산물이다. 이 투쟁의 동인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러 양국 모두에게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지정학적 '경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켜야 할 핵심 공략 대상인 것이다. EU 및 NATO의 동진 확대로 새로이 구축되는 유럽의 정치지형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속하는가가 유럽을 넘어 유라시아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동'(러시아)과 '서'(EU 및 NATO)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중요성, 유럽 최대의 영토규모, 4,400만

인구, 방대한 지하자원과 최강의 농업생산력, 강한 근육질의 산업생산력 등 잠재적·현실적 국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의 대외적 선택이 유라시아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패권 장악을 위한 미·러 간 세력 투쟁에서 최대 승부처인 이유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에게 우크라이나의 포섭은 러시아의 제국적 부활을 억제하면서 NATO의 세력권 확대를 보장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 카스피해 연안지역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준다. 역(逆)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서구화 방지와 중립화, 나아가 슬라브 공동체로의 유인은 NATO의 동진팽창을 차단하는 '방역선'이다. 동시에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의 '징검다리'이자 흑해와 CIS 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의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정리하면 크렘린에게 우크라이나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재건에 중요한 초석(礎石)인 것이다.



### 미·러 대립의 '언더커런트'(暗流)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격렬한 대립 이면에는 에너지 패권 투쟁이라는 정치적 현실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러 봉쇄정책의 강화는 사실 에너지 패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바마 정부 이래 방대한 에너지 채굴이 가능해지고 더욱이 셰일혁명에 성공하면서 미국은 에너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탈바꿈했다. 최근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가진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미·러 사이에 세계 천연가스 소비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주 무대는 에너지 먹는 '하마'들이 몰려 있는 유럽과 동북아다. 현재 미국은 대러 신제재법(CAATSA)을 내세워 이미 완공해 개통을 앞둔 노드스트림 II (Nord Stream II) 가스관(러시아-발트해-독일)의 가동을 저지하려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는 물론이고 독일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신규



PNG 노선이 가동되면 EU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럽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NATO 동맹국들에게 노드스트림 II 사업 철퇴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은 노드스트림 II에 고강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 확대는 서구의 대러 제재를 양적,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워싱턴이 새로운 국부 창출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에너지수출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유럽 가스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유익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미국의 대러 압박 이면에는 자국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확대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약 70%를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약 40%가 러시아산이다. 노드스트림 II가 작동되면 유럽이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늘릴 것이고 미

국산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서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함께 러시아에 소위 '지옥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정치외교적, 군사안보적, 경제통상적 작용과 반작용의 보복을 주고받음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문자 그대로 다시 신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노드스트림 II는 폐쇄 압력을 받아 국제유가는 춤추고 금융시장은 휘청이며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

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에너지, 곡물,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충돌이 만들어 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하면서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자원대국

주지하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광활한 영토에 멘델레프 원소주기율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자원이 매장된 세계적 자원부국이다. 동시에 넓은 영토에서 다양한 곡물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농업대국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경우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의 하나로 석유수출국기구





Global Economy

플러스(OPEC+) 내 공급 증가를 견인하는 산유국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량이 세계 1위, 원유 생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2위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가 17%, 석유는 13%에 이른다. 특히 러시아 원유 수출의 53.8%, 천연가스 수출의 46%가 유럽으로 향한다.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핵심 수출 시장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세계적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의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의 대명사 ‘체르노젠포(흑토대)’으로 뒤덮여 있고, 국토의 80% 이상에서 경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바구니’,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린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와 함께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미·러 충돌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는데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 1월 월간 상승률을 보면 미 천연가스(30.7%), 브렌트유(17.3%) 선물 가격이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93.10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2014년 9월 30일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실행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명료하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러의 소모적인 극한 대처로 이득을 취하는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국제 에너지 메이저라는 점이다. 중국은 힘의 오버스트레칭을 야기하는 미·러의 대립을 멀리서 흐뭇하게 즐길 것이고, 국제유가는 천장을 뚫고 계속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이다.

JP 모건은 올해 1분기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후 위기로 생산량이 불안정한 곡물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는 전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다. 우크라이나도 밀 수출 세계 5위, 옥수수 수출은 3-4위를 다룬다. 전쟁이 현실화되거나, 서방의 대러 제재조치가 이뤄진다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고 가격 폭등은 필연적이다. 이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35.7로 ‘아랍의 봄’ 사태로 국제식량 가격이 급등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중 갈등, 탄소 중립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주요 금속 원자재 가격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금속시장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점유율은 매우 높다. 니켈의 점유율은 약 49%, 팔라듐 42%, 알루미늄 26%, 백금 13%, 철강 7%, 구리 4%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세계 2위 생산국 위치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가격의 폭등이 현저하다. 지난 2월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날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7% 오른 t당 3,186달러를 찍었으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위기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한국, 글로벌 경제 후폭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야기한 글로벌 경제 역풍에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다. 자원 부국 러시아는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의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원료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선철, 백금, 유무연탄, 원유 등 수출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러 무역액은 약 273억 달러로 러시아는 우리나라 10위권 교역국 안에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명료하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러의 소모적인 극한 대처로 이득을 취하는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국제 에너지 메이저라는 점이다. 중국은 힘의 오버스트레칭을 야기하는 미·러의 대립을 멀리서 흐뭇하게 즐길 것이고, 국제유가는 천장을 뚫고 계속 고공행진을 거듭할 것이다. 국제 투기세력들이 미·러가 인위적으로 연출한 위기 조장에 편승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며 활개 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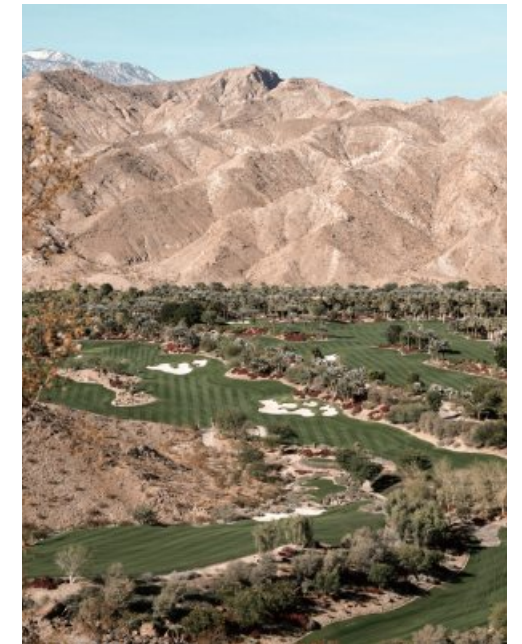
#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달러가 일으킨 골프 플랫폼 전쟁

세계 골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비롯한 골프 스타들이 활약하는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러피언 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들이 그 변방에서 각각 자신의 영토를 갖고 있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이런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도발이 일어났다. 거침없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오일달러가 세계 골프계에 플랫폼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천문학적인 상금을 내건 미 PGA투어에 대항하는 슈퍼골프리그(SGL) 또는 프리미어골프리그(PGL)를 창설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총성이 울린 것이다.

writing. 민학수(조선일보 스포츠전문기자)

## 내년 '슈퍼골프리그' 출범 목표... 스타 선수에 수백억~수천억 원 계약금 제안

올해 2월 1일 영국 신문 데일리그래프는 독점 보도라며 슈퍼골프리그를 출범시키려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이안 폴터(잉글랜드)에게 약 2,200만 파운드(약 357억 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하루 뒤 같은 신문은 전 세계 1위였던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가 비슷한 금액에 슈퍼골프리그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선수들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소식도 있다. 몸집 20kg을 불려 400야드 초장타에 도전하는 '필드 위의 괴짜 물리학자' 브라이슨 디샴보(미국)가 1억 파운드(약 1,623억 원)를 제안받았다고 영국 신문 미러가 전했다. 1억 파운드는 PGA 투어 최다승 타이 기록인 82승(메이저 15승 포함)을 거둔 타이거 우즈의 PGA투어 통산 상금 1억 2,085만 달러(약 1,447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올해 29세로 PGA투어에서 8승(메이저 1승)을 거둔 디샴보에게 계약금으로 47세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0년 넘게 벌어들인 상금보다 더 준다는 보도에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의 제안이 오고 가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 사우디 국부펀드가 출범시키려는 슈퍼골프리그의 정체

국내 영화 '타짜'에서 유행어가 된 "묻고 더블로 가"를 떠올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돈 잔치를 바탕으로 PGA투어를 밀어내고 세계 최고의 골프 리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2023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슈퍼골프리그는 남자 골퍼 톱스타 48명만 출전해 8개월간 18개 대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12개 대회는 미국에서, 나머지 6개 대회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48명만 참가하는 대회인데도 총상금 2,000만 달러를 내걸었다. 우승자는 400만 달러(약 48억 원), 최하위도 15만 달러(2억 원)를 받게 된다. 올해 마스터스 우승 상금 207만 달러의 배에 가까운 액수다. 개인전 외에 골프에서 아주 독특한 포



맷인 단체전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열린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F1) 형식의 팀 경쟁 포맷을 참고했다. 개인전을 치르면서 4명이 한 팀으로 전 세계를 돌며 투어를 한다. 팀 캡틴은 리그 오너십도 받게 된다. 이들은 메이저 대회나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 일정과는 충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2부 투어 전략 우려로 PGA투어 상금 증액 맞불

하지만 미 PGA투어는 상당수 대회 일정이 겹치게 돼 자칫 2부 투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될 수 있다. 미 PGA투어의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결사 항전 의지를 밝힌 상태다. “슈퍼 골프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영구 징계를 하고 라이더컵 출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파격적인 당근책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플레이어 임팩트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보너스 제도를 시작했다. ‘플레이어 임팩트 프로그램’은 4,000만 달러를 성적순이 아닌 팬들의 인기를 기준으로 선수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PGA투어 대회의 상금 규모도 대폭 키웠다.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올해 총 상금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500만 달러를 올렸다. 우승 상금도 지난해 270만 달러보다 90만 달러가 많은 360만 달러(43억 원)다. PGA투어에 우승 상금 40억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거의 모든 대회가 상금을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증액했다. 그리고 시즌 전체 성적에 따라 30명만 출전하는 최강전 투어 챔피언십도 엄청난 돈 보따리를 푼다. 이 대회는 지난해 출전 선수 30명에게 우승 1,500만 달러를 포

함 보너스 6,000만 달러를 주었으나 올해는 우승 1,800만 달러를 비롯해 모두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 파열음이 터지고 있는 PGA투어

올해 2월 6일 필 미켈슨(미국)이 PGA투어를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가 역풍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켈슨은 자신이 여러 차례 우승한 PGA투어의 유서 깊은 대회 페블비치 프로암(2월 3~6일) 대신 같은 기간 사우디에서 열린 아시안 투어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참가했다. 사우디 인터내셔널은 슈퍼 골프리그를 추진하는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개최하는 대회다. 미켈슨 외에도 더스틴 존슨, 브라이슨 디샬보, 버바 왓슨(미국) 등 정상급 선수들이 페블비치 프로암을 외면하고 이 대회에 출전했다. 이들은 거액의 초청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켈슨은 사우디 자본이 준비하는 슈퍼 골프리그와 오래전부터 만난 이력이 있고 여러 차례 긍정적인 발언을 해 왔다.

사우디 대회를 마친 미켈슨은 “PGA투어는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선수가 가져야 할 미디어 권리를 챙기고 있다”며 “PGA투어의 탐욕은 역겹다”고 했다. 올해 52세인 미켈슨은 2021년 PGA챔피언십에서 사상 최초로 50대 메이저 챔피언에 오른 전설이다. PGA투어에서 45승을 올렸고 50세 이상 선수들이 뛰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4승을 거두었다.

거센 반론이 쏟아졌다. PGA투어 선수 출신인 미국 골프 채널의 해설가 브랜들 챔블리는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어떤 스포츠 리그도 선수 개인에게 미디어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스포츠 리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미켈슨은 자



신의 권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우디 정부가 인권 운동을 펼치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것을 세계 골프 스타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희석시키는 ‘스포츠 워싱’에 미켈슨이 동조한다는 지적이다. AP칼럼니스트인 짐 러스키는 “PGA투어 덕분에 8억 달러의 자산을 쌓은 미켈슨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PGA투어가 없었다면 미켈슨을 비롯한 많은 선수가 1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주는 대회 대신 회원제 골프장에서 돈을 걸고 경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 사우디 국부펀드의 우회전략, 아시안투어

이런 플랫폼 전쟁에서 문지마 투자로 돈벼락을 맞은 곳이 바로 아시안투어다. 코로나로 존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영향력이 줄고 있던 세계 골프의 변방 아시안투어에 호주의 그레그 노먼이 대표를 맡은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가 2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부터 10년간 대회 10개를 새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신설 대회는 올해 3월 태국에서 첫 대회를 치르고 이후 잉글랜드, 한국, 베트

남, 중동,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대회당 총 상금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규모로 열기로 했다.

아시안투어에 투자를 주도하는 LIV 인베스트먼트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다. PGA투어와 유러피언 투어가 단합해 슈퍼 골프리그에 참가하려는 선수들을 제명하겠다고 하자 우회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 샤크(백상아리)’란 애칭으로 세계 곳곳에서 88승을 거둔 레전드 노먼은 이미 미 PGA투어 체제에 반기를 든 적이 있다. 1990년대 중반 노먼은 월드 골프투어(WGT)란 기치 아래 세계 톱랭커 30~40명이 출전하는 8개의 챔피언십 대회를 구상했지만, 스타 선수들의 참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세계 1위 온 램과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많은 선수가 아직은 사우디 오일달러가 추진하는 슈퍼 골프리그에 회의적이다. 타이거 우즈도 역사와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디샬보와 존슨이 슈퍼 골프리그 합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미켈슨이 PGA투어에 대한 자신의 비난 발언을 사과하며 당분간 골프를 떠나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대폭 강화되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세금부터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중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최고 12%의 세율이, 그리고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더라도 12%가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취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writing.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

##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방법



### 확 바뀐 취득세 구조

현행 취득세는 2020년 7·10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1~12%까지 적용되고 있다.

구분	유상취득	증여취득
세율	1주택자(일시적 2주택): 1~3% 2주택자: 1~3%, 8%(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8%, 12%(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자: 12%	일반세율: 3.5% 중과세율: 12%
과세표준	실거래가액	기준시가 (단, 2023년부터 시가)

세제나 대출규제가 심한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면 최고 12%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6천만 원이 된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12%를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8%를 적용한다. 이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배려하는 취지가 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세율이 8%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1~3%가 적용된다.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1년이나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한편 주택을 증여하면 원래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근 이 세율이 12%까지 올라갔다. 다만, 이는 부모 등이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된다. 이때 증여받은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맞춤별 취득세 절세 방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최대 12%까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득 전에 세율부터 확인해야 한다.

###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1%인 5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때 생애 첫 주택(수도권 내는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은 취득세를 50~100% 감면하므로 이 부분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1세대'는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을 말한다.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취득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적절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30세 미만자는 소득이 없으면 세대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게 되며, 65세 이상의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한편 취득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주택 수에는 일반주택(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뿐만 아니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7·10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이 2개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에 해당되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8~12%가 적용될 수 있다.

### 2)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현행 취득세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소도시 등에 소재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도 종과세를 적용하면 너무 가혹한 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①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1~3%를, 이를 위반 시 8%를 적용한다.

②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1~3%를, 이를 위반 시 8%를 적용한다.

③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1~3%를 적용한다.

이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
① 규제지역 → 규제지역	1년	1년
②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3년	3년
③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또는 비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없음	3년

위 표를 보면 ① 규제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해야 취득세를 1~3%로 적용받는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②의 경우에는 '3년'이 주어지고 ③의 경우 취득세는 처분기한이 없으나 양도소득세에서는 3년이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종전주택의 처분시기를 결정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3) 증여의 경우

다주택자가 자녀 등에게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12%가 나오므로 이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3억 원에 미달한 주택을 증여하는 식이다. 이들은 12%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증여할 때 부채와 같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순수증여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 부분은 12%, 양도부분은 1~3%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증여는 가급적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 2022

## Financial Market



##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연초부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시장은 2/4분기에도 크게 개선된 흐름을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주식시장의 하락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2022년은 선부른 상승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가 하락 압력과 높아진 변동성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이 2분기 이후에도 여전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writing.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 2022년은 크게 확대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정책 정상화에 따른 성장을 둔화를 수반

올해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인플레이션 논란이나 오미كرون 변이 확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저의 이유는 지난해까지 크게 확대된 금융불균형이 다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의 회복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이 금융 불균형이 크게 확대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한 유동성에 기인한다.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연관된 여러 경로를 통해 유동성이 추가 공급되고 이 유동성이 기업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흘러갔지만 상당 규모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금융불균형은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 이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올해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직접적인 동인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 금융불균형을 이유로 이 미 금리를 세 번 인상했고 추가 금리 인상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 행보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미국 연



준은 점점 더 통화정책 정상화 강도를 높여 가는 중이다. 이번 1분기 중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게 될 텐데 금리인상 폭과 횟수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 이후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은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점점 더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금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불안감이 잦아드는 데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고점을 지나 점차 둔화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2021년 2분기 말과 3분기 초에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를 시사하는 여러 경제지표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그 가능성을 높이는 중이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 주는 지표들은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2021년 상반기 고점으로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도

여름을 고비로 하락하고 있다. 심리지표들의 뚜렷한 반락은 생산이나 투자와 같은 실물지표들의 하락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확산되면서 일상 회복이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부 업종에 국한될 뿐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돌려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성장률 전망에는 치료제 보급과 조금 더 진전된 일상 회복이 전제되어 있지만 경제전망 수치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공되었던 낮은 금리와 여러 자금 조달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종료되며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하반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 때문이다. 이런 정책 정상화를 반영해 우리나라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기관들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를 고점으로 내년과 내후년으로 가며 점차 하락하는 흐름이다.



###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자세가 더 유리

투자환경이 불안하고 변곡점을 돌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자세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자세가 더 유리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과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싹 주식이 거의 없고 투자 기회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회를 남발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인내심이 필요한 이유다. 투자자산의 선택에 있어서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도주를 쫓아 가는 직선적인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수익률을 방어하고 기회를 넓히는 다양화가 필요한 국면이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투자자들의 성향과 투자 기간별로 투자 유망 종목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2년 주식시장처럼 국면 전환이 잦고 높은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세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수익을 쫓아 테마주를 따라다닐 경우 변동 폭이 확대되고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동학개미가 활성화되었던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의 기대 수익을 얻는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높은 배당을 주는 지주회사나 금융주들이 높은 변동성 자세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여전히 올해 각광받는 성장주들(2차 전지 및 미래차 동차, 플랫폼 및 메타버스, 차세대 에너지 및 친환경 등)의 분할 매수가 유리할 것이다. 2022년에도



주요 정부들은 2021년보다는 적지만 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성장주들은 이 정책의 수혜가 집중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슈나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이슈들은 이전에도 시장의 관심을 받는 미래 이슈들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그 미래가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 정부들의 2022년 이후 재정 지출에는 향후 국가의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이들 산업에 꾸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관심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향후 성장과 수익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문제는 팬데믹 국면에서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으로 투자 기간을 국한해 보면 초과 수익을 기록하기 쉽지 않은 테마일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투자인 만큼 기본적으로 장기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보면 큰 폭의 변동 과정에서 주가의 큰 폭 조정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정책의 교집합에 속해 있는 미래 성장주들은 그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경기 순환의 흐름을 따르는 전술적인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수 소비 주식들보다는 주력 수출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초과 수익을 실현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유는 미국 등 주요 정부들의 재정정책과 이로 인한 낮은 성장률 수혜는 2022년에도 우리 수출이



받을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2022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정책을 보면, 가계에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해 주던 지난해와는 달리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친환경 이슈에 대한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자본재 및 중간재 생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등장하고 있고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 역시 날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와 중환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은 2022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작았던 반면 가계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역시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과 정책 그리고 금리인상기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긴축 시행 후 2분기 채권시장의 흐름은?

2022년 1분기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요인은 '긴축'이다. 멈출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고공행진으로 이를 적시에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선택한 방법은 공격적인 긴축이다.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도 취약하지만 긴축에는 더 취약하다. 금융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예상한 것과 다를 때 가장 많이 움직

인다.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인 컨센서스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높아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개입에 익숙해졌고,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민첩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또 다시 빠르게 안정됐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2008년 이후 금융시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던 요인은 결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시그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금리를 등에 업고 이루어졌던 다각도의 위험자산 투자들이 중앙은행의 긴축 시그널을 계기로 공포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긴축은 과거에 비해 빠르고, 공격적이다. 목적이 경기 회복에 따른 정책 정상화가 아닌, 인플레이션 대응이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긴축의 배경이라면 경기의 호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책 정상화를 위해 속도가 다소 느린 경향이 있다. 반면 인플레이션 대응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만약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둔다면 지금까지 정책으로 올린 경기의 수준이 인플레이션의 역풍을 맞아 하강하게 되고,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면 경기 하강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여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돼 경기 하강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는 이유는 ①인플레이션 적시 대응 ②추후 경기 하강기에 정책적 대응 여력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연준이 가장 빠르게 긴축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는 곧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한 시기가 될 것이다. 현재 컨센서스뿐 아니라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반기에 서서히 진정된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 내면서도 인플레이션은 1년 내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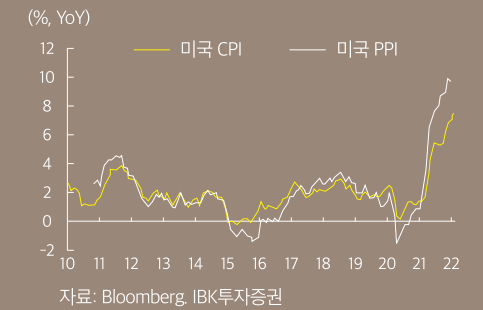
락할 것이며 올해 중반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반기 물가안정의 이유는 기저효과 발생과 소비 여력 확대의 제한, 긴축 부담에 따른 경기 고점 통과 및 상반기 긴축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연준의 전향대로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반기 진정되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태도가 가장 매파적이어야 하는 시기는 상반기가 될 것이다.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하강의 부작용을 짊어지고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단행해야 하는 당위성은 점점 떨어진다. 현재 연준은 유례없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반기 인플레이션 진정과 함께 경제 지표의 하강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경기의 하강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겠다. 실제로 긴축이 도래 이전에 글로벌 경기 순환 사이클은 꺾이기 시작했고, 팬데믹 기간에 쌓아둔 미국의 가계저축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를 통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추후 이연소비 증가 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 임금이 올라가고는 있으나 이는 저임금 집단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이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하반기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는 점점 늦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금융시장의 패닉은 사실상 2분기 초반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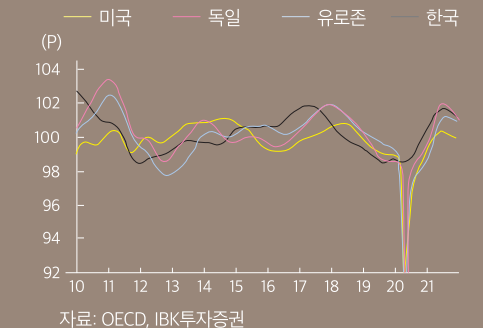
당시의 경제 상황과 대외 관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긴축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금리 충격은 긴축기 초반에 가장 강하고 ②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행되면(긴축기 중반) 금리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며

③긴축이 진행될수록 경기 부담이 누적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긴축의 초반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행보에 대한 상상의 여지가 많다. 지난 1분기는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2분기가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됐고, 새로운 점도표도 확인했으며 인플레이션 지표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기저효과와 시작 및 경제지표 정점 통과, 오미크론의 계절독감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될 것이다. 긴축이라는 금리 상승 압력은 여전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는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고점을 지나 횡보하고 하락하는 시기가 2분기 이후 점차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중... 긴축의 이유



### 긴축 이전이 이미 꺾이기 시작한 경기 순환 사이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다

판교WM센터

차별화된 자산관리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판교WM센터. 이곳의 직원들은 언제나 탁월한 역량으로 고객의 마음을 살피고 다음을 준비한다.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판교WM센터의 따뜻함이 판교테크노밸리를 물들이고 있다.

writing. 유수정 photograph. 김범기



### 유연한 조직문화가 빚어낸 우수한 성과

국내 굴지의 IT기업을 포함해 첨단산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혁신의 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넘쳐나는 이곳의 중심에는 판교WM센터가 위치해 있다. 판교WM센터는 자리의 위상에 걸맞은 따뜻하고도 냉철한 자세로 매일같이 고객을 만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숨에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판교WM센터를 이끄는 안호균 센터장은 언제나 직원들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업무의 성과를 높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내적으로 단단한 유연함을 갖춘 판교WM센터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님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센터의 문을 두드리 주십니다.”  
플랜이 아닌 성과로 입증하는 판교WM센터의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기존 거래 심화 및 가족 거래 확대, 나아가 새로운 고객까지 소개하는 등 그 만족도를 증명한다.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고객의 마음을 읽고 최적으로 관리하다

언제나 고객의 마음을 읽는 데 신중을 기하는 판교WM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화상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실 고객들을 위한 배려에서다. 또한 고객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도 잊지 않는 판교WM센터.

“저희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자금 목적에 적합한 상품으로 구성하되, 서로 상관계수가 작은 자산들로 배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촘촘

진정성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은 기존 거래 심화 및 가족 거래 확대, 나아가 새로운 고객까지 소개하는 등 그 만족도를 증명한다.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균형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축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제안이 가능한 것은 직원들 모두가 경제 이슈에 해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량을 이끌어 낸 데는 안호균 센터장의 역할이 크다. 그는 날마다 메신저를 통해 국내외 경제 뉴스와 기업 소식을 직원들에게 전달해 준다. 그의 노고는 직원들의 발전으로 빛을 발한다.

### 각양각색의 강점을 갖춘 직원들

대단한 성취를 이룩한 판교WM센터이지만 안호균 센터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영업점과의 유연한 소통을 통해 자산관리 허브로서 명품 센터가 되는 원년의 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라는 목표를 가진 그. 판교WM센터 직원

들이 함께하기에 그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항상 호쾌한 웃음을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을 대표하는 PB로 VM Maestro 6회 선정 등 대단한 결실을 이뤄 온 이미옥 부센터장, 자본시장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탁월한 전략으로 전담 고객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 이경언PB팀장, 수신, 해외투자, 여신심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물론 투자상품 판매 과정 전반의 리스크 종합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최우선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멀티플레이어 박은영 팀장, 그리고 센스 있는 고객 응대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으로 PBA로서의 우수한 면모를 보여 주는 권효진 대리까지. 훌륭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은 진정 판교WM센터만의 자랑이다. 이들이 있기에 판교WM센터의 내일은 더없이 밝아 보인다.

## 우리 판교WM센터를 소개합니다

“ 서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화기애애한 단합력을 발휘하는 판교WM센터. 뛰어난 직원들이 쌓은 탄탄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안호균 센터장



“ 고객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판교WM센터.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곳에서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꿈에 그리던 미래를 만나고 있습니다. ”

이미옥 부센터장



“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언제나 정확한 눈과 예리한 통찰로 다음을 준비하는 판교WM센터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귀 기울입니다. ”

박은영 팀장



“ 판교WM센터는 언제나 고객님들의 복합적인 금융니즈에 부합하는 명쾌한 솔루션과 자산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짧은 감각으로 미래를 내다봅니다. ”

이경언 PB팀장



“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일터. 수평적인 소통과 유연한 조직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언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

권효진 대리





## 해사하게 피어난 봄꽃 봄빛을 가득 품다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이, 봄꽃은 선물처럼 피어나 봄소식을 알린다.  
봄바람을 타고 오는 꽃향기에 마음이 달뜨는 요즘. 상춘객이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우리나라 곳곳의 봄꽃 명소를 소개한다.

writing. 임산하



# 강릉 경포호

위치 강원도 강릉시 저동, 경포호

## 마음에 해말간 봄빛 수를 놓다

세상의 빛을 담아 눈부시게 띄우는 경포호. 그 아름다움은 쉽게 형용할 수가 없는데, 어쩌면 경포호의 멋을 가감 없이 표현해 낸 단어는 ‘경포호’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경포호(鏡浦湖)는 말 그대로 ‘거울을 닮은 호수’이다. 어떤 것이든 담아내는 거울처럼 호수는 티 없이 맑다. 특히 햇빛과 달빛을 오롯이 받아 호수 위에서 반짝이는 윤슬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도 그 빛이 들어찬 것만 같은 고요함에 빠지게 된다.

줄곧 시원한 파도가 밀려오는 경포대 해수욕장과는 다른 호젓함이 매력으로 꼽히는 경포호는 특히 벚꽃이 피는 봄이 장관이다. 경포호를 둘러 피어난 벚꽃의 향기는 잔물결처럼 은은하게 퍼지고, 그 빛깔은 해사하게 호수를 물들인다. 벚꽃 잎은 깊은 밤에도 투명하게 빛난다. 매년 4월마다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로 꼽히는 ‘경포벚꽃잔치’가 열리는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꽃에는 시국이 없다. 언제나 봄은 오고, 벚나무는 또다시 해말갈게 꽃을 피우기 마련이다. 다정히 봄을 맞이하고 싶은 당신에게 경포호만 한 곳은 없을 것이다.



# 남해 두모마을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37

## 노란 유채 물결에 풍덩 빠지다

남해 두모마을에는 ‘두모 유채꽃 메밀꽃 단지’가 있다. 유채꽃은 이곳의 계단식 논 일대에 노란 물결을 이루며 피어난다. 층층이 쌓인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곳에 있으면 정말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성인의 다리 높이 정도에서 피어나기 때문일까. 유채꽃 근막으로 들어가면, 봄이 우리 다리에 달라붙어 영영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유채꽃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봄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두모마을의 유채꽃밭 풍경이 실로 눈부신 까닭은 유채꽃 너머에 있다. 하늘과 맞닿은 남해, 그 질푸름이 절경을 이룬다. 바다가 보이는 풍경의 양쪽으로는 아트막한 산이 자리하고 있어 산수가 빼어나게 어우러진다.

남해 두모마을 주변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해안로를 따라 환히 피어난 벚꽃이 우리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기 때문이다. 시원하게 누리는 봄바람은 덤이다. 언제나 멋진 여행지로 손꼽히는 경상남도 남해. 이곳에서 봄의 절경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란다.



# 여수 오동도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산1-11

## 봄 햇살 속 수려하게 빛나는 동백꽃

전라남도 여수는 사계절 모두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봄의 여수, 봄의 오동도는 결코 놓칠 수 없다. 너른 바다 한가운데서 후박나무, 팽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나는 오동도에는 특별하게도 동백나무 군락이 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짙은 그늘 사이사이를 붉게 채색한 동백꽃. 그 선명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동백꽃은 꽃이 질 때도 날 잎으로 떨어지지 않고 꽃송이째 떨어진다. 그래서인지 땅 위에도 꽃이 피어난 것만 같다.

그 옛날 오동나무가 많았다 하여 오동도라 불리지만, 이제 이곳은 동백섬 그 자체이다. '오동도' 하면 '동백나무'가 떠오를뻔더러 오동도로 바꿔 다주는 열차 이름도 '동백열차'이니 말이다. 여수 오동도의 동백은 2월 즈음부터 꽃을 틔우고 3월 중순경에는 새빨갛게 피어난다. 그렇게 잠시 수려함을 빛내다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린다. 나무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추운 겨울에 꽃을 피워 내는 내면의 단단함이 동백꽃의 일생을 관통하는 것은 아닐까.



# 광양 매화마을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548

## 털구름처럼 피어난 새하얀 매화

3월이 되면 섬진강을 따라 매화가 새하얗게 피어난다. 그윽한 향기를 뿜내는 매화는 마을 곳곳에도 빼곡히 피어나는데, 그 모습은 마치 털구름이 내려앉은 것만 같다. 마을 뒤로는 지리산이 유려한 산세를 뿜내고 있어 사방이 장관인 이곳은 광양 매화마을이다. 매화마을은 봄마다 상춘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봄빛을 머금은 매화가 우리를

환영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봄을 한껏 만끽할 수 있다. 머리 위에도, 마을 길 곳곳에도, 그리고 매화마을을 거니는 우리 마음에도 봄은 자연스레 피어난다. 우리 자신이 계절에 동화됨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봄꽃이 주는 힘인지도 모른다. 비록 코로나19로 매화축제는 잠정 취소되었지만, 다음이 있다면 매화마을에 가 보는 것을 추천한다. 팬데믹으로 놓친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촘촘하게 피어난 하얀 매화꽃 사이로 조화롭게 피어나는 홍매화는 매화마을 속 아름다움의 정수다.



## 차의 온기로 비염을 무찌른다

산들산들한 봄바람이 마음을 간질이는 요즘. 그런데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새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코가 간질간질하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환절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몸이 지쳐 버린 이들을 위해 비염에 좋은 차를 소개한다.

with 임산하

### 몸을 포근하게 감싸 주는 생강차



봄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날씨가 추워지는 저녁에 유독 재채기와 콧물이 심해진다면 생강차를 추천한다. 사람은 체온이 낮아질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강이 체온을 높여 주는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에는 항염증 기능이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긴장 완화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역할도 한다면, 생강차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심신에 안정을 주는 봄빛 녹차



봄을 닮은 담녹색의 녹차. 싱그러우면서도 잔잔한 빛깔로 우러나는 녹차를 마시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 든다. 실제로 '그린 푸드(green food)'라 불리는 녹색 음식은 심리적·물리적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녹차에는 떫은맛을 내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 성분이 있는데,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카테킨은 알레르기성 비염 완화에 도움을 준다. 눈치 없이 찾아온 비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녹차는 분명 심신의 안정을 줄 것이다.

### 온몸의 건강을 지켜 주는 오미자차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 다섯 가지 맛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 오미자. 오미자는 항암 효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 등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미자의 다섯 가지 맛이 오장(五臟)에 두루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매운맛 성분은 폐 기능 개선에 효과를 주어, 한방에서는 오미자를 기침약으로도 사용한다. 기침이나 가래가 동반되는 비염에는 오미자차를 마시면 좋다. 따스하게 우려낸 오미자차 한 입에 비염뿐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지켜 보자.

## 봄빛 싱그러움이 가득한 문화 산책

### 전시 EXHIBITION



####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

서울시립미술관과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빛'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빛의 인상', '빛과 우주', '빛의 색채' 등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하여 보는 이를 빛의 무한한 세계로 초대한다. 백남준을 필두로 클로드 모네, 바실리 칸딘스키, 야요이 쿠사마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작가 43인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하는 특혜를 누릴 절호의 찬스. 작가들 개개인마다 담아 낸 빛은 어떤 개성을 띠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은가.

●  
일정 2021년 12월 21일~2022년 5월 8일  
장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뮤지컬 MUSICAL



#### <프리다>

2020년 제14회 DIMF(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프리다>. 초반 관객 반응을 살피는 트리아아웃 당시에도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많은 이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이 작품이 올봄 초연을 확정했다. <프리다>는 멕시코의 혁명가이자 화가였던 프리다 칼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뮤지컬로, 그의 웅장하고도 눈부신 삶을 오롯이 담아내었다. <프리다>의 삶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여 만세!"를 외쳐 보자.

●  
일정 2022년 3월 1일~2022년 5월 2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클래식 CLASSIC



#### <손얼음 조성현 듀오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손얼음과 플루티스트 조성현. 음률로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내는 두 명의 음악가가 만났다. 섬세한 선율의 피아노와 청아한 울림의 플루트가 들려줄 연주곡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게 한다. 카를 라이네케(C. Reinecke)의 '발라드 작품번호 288(Ballade, op.288)'로 포문을 여는데 이 공연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 공연장을 고요한 화려함으로 물들일 것이다. 이 외에도 매력적인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된다.

●  
일정 2022년 5월 14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발레 BALLET



#### <국립발레단-해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의 <해적>이 다시 돌아온다. 안무가 송정빈이 현 시대에 맞게 재탄생시켜 더욱 새로워진 스토리와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나 2020년 11월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그때 그 작품 그대로다.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표현해 내는 서사와 역동적인 군무까지 모두 감상하고 싶다면 <해적>을 추천한다. 대전에서 막이 오르는 <해적>은 계속해서 춘천(예정), 경주(예정), 서울 공연을 계획 중이다.

●  
일정 2022년 3월 24일~2022년 3월 25일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클로드 모네  
Claude Monet  
파라솔을 든 여인-카미유와 장  
(Woman with a Parasol-Madame  
Monet and Her Son),  
1875, 100×81cm

빛을 담아내고자 했던 인상주의 화가, 모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도 빛은 생동감 있게 닿아 있다.  
이 그림 속 카미유는 모네의 첫 번째 부인이다. 모네와 카미유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둘에게는 서로가 세상 전부였다. 카미유와 아들이 모네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모네도 이 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것이 모네의 사랑법이었을지 모른다.

VIP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WIN CLASS

##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 가능 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 웨딩카 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및 이용 가능 지역은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건물명 작명 제공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 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